문화재 사랑, 우리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20년 넘게 생활사 자료를 3만여 점이나 모아 온 이난희 씨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꾸준히 역사 및 문화재 공부를 해왔다. 또한 자신이 애써 모은 유물들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2016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 '시민의 박물관'에 1천여 점의 자료를 기증하기도 했다. 우리 조상의 아름다운 삶이었던 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소중하게 지켜 나가는 이난희 씨의 뜨거운 마음이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 문화재 우리가 아껴야

이난희 씨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유기, 자기, 베개, 보석함, 요강, 상 등 생활사 자료를 틈틈이 모으는 일을 해 왔다. 그녀의 문화재 사랑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훨씬 오래 전, 사진기 하나만 들고 전국을 돌며 문화재 사진을 찍던 젊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처럼 젊은 시절부터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이난희 씨이지만 "유물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작은 계기가 있었다. 약 20여년 전 우연히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가게 주인이 고문서를 찢어서 가구에 붙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고문서를 덕지덕지 붙

20년간 생활사 자료를 모은 이난희 씨

여서 옛날 장롱처럼 보이게 해서 비싸게 팔려는 것 같았다. 그것을 본 이난희 씨는 분노의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막 훼손해서 장사하는 데 악용하려고 하다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아 있는 고문서를 다 사버렸죠. 더 이상 훼손당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문화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이난희 씨는 문화재에 대한 단순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알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길이 보존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 것이다.

우선 더 본격적으로 문화재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사동과 장안평, 신설동 풍물시장과 동대문 벼룩시장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물을 모았다. 옛 물건이 버려졌다는 소문을 들으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 유물을 구해내야 안심이 되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

이난희 씨가 지금까지 모은 생활사 자료는 3만여 점.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이토록 방대한 양의 유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 넉넉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발품을 파는 노력 밖에는 한 것이 없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바로 절약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화장품 하나 사본 적이 없고, 식비를 아끼다가 위와 장이 꼬인 적도 있었다.

족두리와 남자집안 내력을 적어 넣는 사성보 보자기

여인의 가마에 넣어두었던 가마요강

"알뜰하게 악착같이 모으는 방법 밖에 없었어요. 유물을 사는 데 돈을 써야 하니까 다른 데에는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았죠. 그렇게 한 만큼 더 애착이 가고 꼭 자식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난희 씨의 이런 각별한 애정을 아는 주변 지인들은 "개인박물관을 열라"고 부추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난희 씨는 2016년 말 개관할 예정인 서울시 '시민의 박물관'에 수집품 1천여 점을 흔쾌히 기증하기로 하였다. 자식 같은 생활사 자료를 서울시 최초의 '생활사 전문 박물관'에 두는 것이 생활사 자료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증을 해버리면 서운하고 아깝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려 주고 보여 주려고 모은 거니까요. 저를 감동시킨 생활사 유물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난희 씨의 보물창고에는 수많은 유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발 디딜 틈이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지만 제 자리를 찾은 것처럼 정갈하고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처럼 지저분하거나 만신창이가 된 것들도 많았다. 그러나 구해 올 때는 쓰레기처럼 지저분한 유물도 이난희 씨 손에 일단 들어오면 반질반질 윤이 나게 변신을 한다. 마치 귀한 자식을 돌보듯 사랑의 손길로 수없이 닦으니 빛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난희 씨를 작은 영웅으로 추천한 전남도청 주택건축과 유영광 사무관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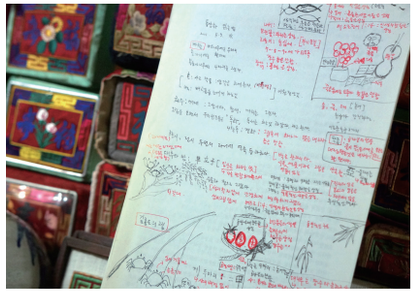
"오랜 시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문화재를 대하는 자세가

천이 손상될까봐 여러 번 손빨래로 하얗게 만든 유물. 광목천에 놓은 자수의 색이 곱다.

남달랐거든요. 자부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고, 책임감은 그보다 더하죠. 옛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난희 씨의 문화재 사랑은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난희 씨는 유물 이야기를 할 때면 유난히 "사랑하니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녀는 유물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그저 유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귀한 것을 귀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는 요즘 세상에,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는 이난희 씨. 그녀의 바람처럼 문화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고서적들



문화재를 공부할 때 기록했던 공책

Interview

이난희 / 20년간 생활사 자료를 모은 우리 문화 애호가

"귀할수록 더 소중하게 다뤄야"

Q.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A. 어릴 때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20대 때에는 사진기 하나 둘러메고 전국을 여행하곤 했는데 그렇게 찍은 문화재 사진을 모아 책으로 내 보는 게 꿈이었죠. 물론 젊은 시절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문화재 사랑은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Q. 생활사 유물을 특히 많이 모으셨는데, 생활사 유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이잖아요. 왕이 썼던 물건은 한 시대의 특수성만을 보여 주지만 백성이 썼던 물건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삶이 담겨 있어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들의 역사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정작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죠. 생활사 자료는 미처 사료로 기록되지 못한 백성들의 삶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Q. 생활사 유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예를 들면 아기를 위해 지은 배냇저고리, 부부 금실이 좋으라고 혼례 때 꼭 넣어가는 원앙목각… 이런 유물을 보면 참 어여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아주 오래 전의 물건인데도 현재의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Q. 유물을 사 모을 때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나요?

A. 우선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아요.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물을 가진 분들도 저를 우선적으로 찾아 주시더군요. 또 다른 원칙도 있어요.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인지 우리나라 것인지가 확인된 것, 반드시 허가받은 정식 경로를 통해 거래하는 것 등입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유물에 대한 예의니까요. 귀할수록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